



PART2 인쇄잉크 수출입 분석

컬러잉크 수출 매년 성장... 최대 수출국은 중국 2012년 수입 깜짝 증가... 최대 수입국은 일본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인쇄잉크의 수출입 무역규모는 2004년 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가파르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무역수지 1억5천만 달러 흑자 기록

2004년만 해도 흑색잉크 수출은 2535만 달러, 수입은 2565만 달러로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적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수입은 1045만 달러로 50% 이상 급감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처음으로 3천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3년에는 3600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컬러잉크 수출은 2004년 7천만 달러, 2007년 8천만 달러, 2008

년 9천만 달러 2009년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2013년에는 1억7천만 달러치를 수출했다. 컬러잉크 수입은 2004년 4천만 달러, 2006년 6천만 달러 규모였으나 2009년부터 4천만 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2012년 수입액이 6천만 달러로 깜짝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13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3년 인쇄잉크 수출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2억964만 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6112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 4851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최근 10년간 인쇄잉크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출처: 관세청)

	흑색		컬러		합계		무역규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4년	25,355	25,652	71,865	41,502	97,220	67,154	164,374
2005년	23,279	10,451	72,602	43,377	95,881	53,828	149,709
2006년	22,794	9,591	79,793	61,844	102,587	71,435	174,022
2007년	24,308	12,182	85,079	66,490	109,387	78,672	188,059
2008년	26,853	9,247	95,022	60,612	121,875	69,859	191,734
2009년	28,317	5,981	105,483	45,941	133,800	51,922	185,722
2010년	32,698	4,742	128,311	40,909	161,009	45,651	206,660
2011년	35,563	5,911	149,809	42,956	185,372	48,867	234,239
2012년	35,926	6,599	166,676	63,979	202,602	70,578	273,180
2013년	36,060	7,658	173,582	53,471	209,642	61,129	270,771
총계	291,153	98,014	1,128,222	521,081	1,419,375	619,095	2,038,470



수출실적은 중국, 수입실적은 일본이 가장 많았다.

미·일·중 등 주요 3개국에 수출입 집중

인쇄잉크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3개국에 수출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실적은 중국, 수입실적은 일본이 가장 많았다.

대중국 수출은 2011년 3163만 달러, 2012년 3155만 달러, 2013년 3764만 달러로 최근 3년 동안 19.0% 증가했으며, 수입은 2011년 538만 달러, 2012년 862만 달러, 2013년 600만 달러로 11.4% 늘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했으며, 2013년 무역수지는 3163만 달러 흑자였다.

대미국 수출은 2011년 1521만 달러, 2012년 1617만 달러,

2013년 1418만 달러로 최근 3년 동안 6.8% 감소했으며, 수입은 2011년 1216만 달러, 2012년 1196만 달러, 2013년 1250만 달러로 최근 3년 동안 2.7% 증가했다. 2013년 무역수지는 168만 달러 흑자였다.

대일본 수출은 2011년 1016만 달러, 2012년 1347만 달러, 2013년 1356만 달러로 최근 3년간 33.5% 증가했으며, 수입은 2011년 8301만 달러, 2012년 8011만 달러, 2013년 6532만 달러로 최근 3년 동안 21.3% 감소했다. 대일본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했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인쇄잉크가 워낙 많아 2013년 무역수지는 5174만 달러 적자였다.

수출은 중국 수입은 일본이 1위

2013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3764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2743만 달러, 베트남 2272만 달러, 태국 2002만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은 1418만 달러로 5위, 일본은 1356만 달러로 6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수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미국, 일본 외에도 홍콩, 베트남, 태국, 러시아 연방,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실적은 일본이 6532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1250만 달러로 2위, 스위스 1201만 달러로 3위, 중국 600만 달러로 4위였다. 수입 국가는 일본을 필두로 미국, 중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이었다.☞

〈표14〉 최근 3년간 주요 3개국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출처: 관세청)

		2011년	2012년	2013년
미국	수출	15,217	16,177	14,181
	수입	12,164	11,969	12,500
	무역규모	27,381	28,146	26,681
일본	수출	10,161	13,472	13,565
	수입	83,013	80,110	65,329
	무역규모	93,174	93,582	78,894
중국	수출	31,631	31,551	37,644
	수입	5,388	8,620	6,006
	무역규모	37,019	40,171	43,650

〈표15〉 최근 3년간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

(단위: 천달러, 출처: 관세청)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위	중국	31,631	일본	83,013	중국	31,551	일본	80,110	중국	37,644	일본	65,329
2위	태국	18,236	미국	12,164	홍콩	23,522	말레이시아	12,975	홍콩	27,430	미국	12,500
3위	베트남	17,753	중국	5,388	태국	20,181	미국	11,969	베트남	22,722	스위스	12,012
4위	홍콩	16,287	스위스	5,248	베트남	18,594	중국	8,620	태국	20,027	중국	6,006
5위	미국	15,217	말레이시아	3,940	미국	16,177	스위스	7,553	미국	14,181	싱가포르	4,356
6위	러시아연방	11,764	독일	2,825	러시아연방	13,559	싱가포르	6,585	일본	13,565	말레이시아	3,102
7위	일본	10,161	영국	2,384	일본	13,472	독일	2,720	러시아연방	11,178	영국	3,059
8위	인도	9,647	태국	2,086	인도	7,742	영국	2,636	대만	7,022	독일	2,584
9위	대만	8,675	이스라엘	1,969	브라질	7,478	대만	2,072	인도	6,955	대만	2,273
10위	필리핀	5,048	네덜란드	1,773	대만	6,565	태국	1,871	인도네시아	5,839	이스라엘	2,225